

원희룡 장관, “앞으로도 청년과 한 호흡으로 정책 만들어갈 것”

- 13일 2030자문단 ‘송년의 밤’ 깜짝방문, 청년과의 소통 행보 지속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3일(수) 오후 5시, 2030자문단이 주요 활동을 회고하며 상호 교류하는 ‘송년의 밤’ 행사에 깜짝 방문하여 청년의 지속적 정책 참여를 약속하는 등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.
 - 이번 행사는 1기 2030자문단이 활동성과를 공유하며 활동 노하우를 전수하고, 2기 2030자문단이 희망하는 신년활동을 제안하는 등 청년 간 상호 교류를 위하여 마련되었다.
 - 행사장에 깜짝 방문한 원장관은, 우수 자문단원을 대상으로 연말표창을 수여하고 신년에도 자문단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는 등 청년들을 격려했다.
- 원장관은, “국토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청년과 함께 정책을 빚어 나가고자 2030자문단을 발족하였고, 그간 청년과 국토부가 이인삼각으로 함께 달리는 협력의 토대를 조성하였다”며, “청년과 정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”고 말했다.
 - 뒤이어, “청년의 의견과 실제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책이 한 호흡으로 이어지도록 「청년 내집 마련 1·2·3」과 같은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. 앞으로도 2030자문단이 청년의 시각과 경험이 담긴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달라”고 요청하였다.
 - 또한, 신규 선발된 2기 2030자문단을 향해 “돌아오는 신년에는 2기 2030자문단의 활동을 기대한다. 청년과 국토부의 협업이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긴 호흡의 마라톤이 될 수 있도록, 국토부도 함께 달리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”이라고 약속했다.

2023. 12. 13.

국토교통부 대변인